

보도설명자료

(‘12. 9. 12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편식 지원에 R&D 성과물 절반이 약골”

(‘12.9.19, 머니투데이 11면, (유사기사) 중앙일보 8면)

1. 기사 요지

- ☐ 정부지원 R&D 과제의 성공률은 98%에 달하는 반면, 연구결과와 질은 상대적으로 빈약
 -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며, 엄격한 R&D 문화 때문에 연구자들이 도전·창의적 연구 과제를 기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☐ 국과위, 지경부, 교과부, 방사청 등 주요 R&D 담당부처는 정부 R&D의 도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*하였음

* 9. 19일(수) 오전, 국과위가 ‘국가 R&D 도전성 강화 방안’ 보도자료 배포

< ‘국가 R&D 도전성 강화 방안’ 주요 내용 >

- 각 부처는 ‘혁신도약형 R&D 사업’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에서 지정
 - 과제선정 기준에서 도전성·창의성에 대한 배점을 50% 이상 배정
 - 연구몰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간평가 부담을 완화*
 - * 2년 이하의 단기과제는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진도확인으로 대체
 - 성실한 연구 실패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 면제
 - 감사원은 실패한 결과보다는 연구과정의 위법성을 위주로 감사
- ☐ 지경부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지원하고 연구자의 자율과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하여 R&D 성공률을 조기에 적정화(‘14년 50~60%)할 계획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김남규 과장 (02-2110-5181)
한철희 서기관 (02-2110-5185)